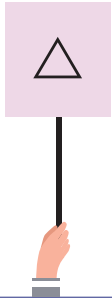


궁금해요

Q. 정시에서는 전 과목 성적이 반영되는 거죠?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입시가 다릅니다. 상위권 대학은 국 수 영 탐 4개 영역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탐구 과목 역시 2과목 모두 반영합니다. 수능 전형으로 진학하려면 수능 응시 과목을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반면 중하위권 입시에서는 수능 영역 중 3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못 본 과목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지우개 찬스입니다. 탐구 영역 역시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뜻

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과 예체능 위주의 실기 위주 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에게는 정시 전형이 곧 수능 전형이죠. 수능 성적을 받고 대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보이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 반영 영역과 수, 다른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고려해 지원해야 하므로 접수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죠. 가나 다군별 3번의 기회가 있지만 상위권에게는 실질적으로 한 번의 기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키워드 보기 입시



수능 성적표 이해하기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 연도)		
12345678	홍길동	04.09.05.	남	한국고등학교 (9)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 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학문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93	95		75	93	
등급	2	2	2	1	4	2

2022. 12.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적표에는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됩니다. 선택 과목도 다양하고 원점수는 개인 간 상대적 비교가 어려워 원점수 그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백분위는 높을수록 잘한 것으로 백분위 93은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비율이 93%, 즉 상위 7% 라는 뜻입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를 토대로 전체 평균, 표준편차까지 고려한 값으로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원점수로 는 과목 간 난도 차로 인해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도입했어요.



2023 정시 전형 특징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은 40% 전후로 전국 기준 20%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처음으로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죠. 일반 전형은 1단계 수능 100%로 선발 후 2단계에서 수능 80점+교과 20점으로 최종 선발. 지역 균형 전형은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 이내로 받아 수능 60점+교과 40점으로 선발합니다.

한 줄 평

공부한 만큼 성적은
오른다. 끝까지
수능 공부 놓지 않기!

수능 전형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도움말 허준일 교사(대구 경신고등학교)
참고 2023학년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3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수능이 다가오면 공부가 완성되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11월 17일 수능일을 기점으로 역산해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 가령 수능 3주 전인 10월 셋째 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효율적이다.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선 8월까지의 공부가 대략 마무리돼야 한다. EBS <수능완성>이 나오는 6월에 고3은 기말고사 준비로 바쁘지만 시험이 끝나는 대로 수능완성에 집중하고, 그러려면 <수능특강>은 4월 둘째 주 정도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_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



기억해야 할 점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어요.

수능 전형에서 면접이 있다는 걸 몰라 면접에 불참해서 불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교대·사범대·의대와 같이 학생·환자를 직접 대하는 경우 인성이 고려 요소가 돼 면접 전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형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권 대학 입시는?

상위권 대학은 국 수 영 탐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탐구 과목 역시 2과목 모두 반영합니다. 대학마다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른 점을 유의해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자연 계열인데 국어를 잘못 봤다면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식입니다. 자연 계열 국어 반영 비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33%, 22%, 31%로 연세대가 낮은 편입니다. 제각각 다른 과목 반영 비율은 학생의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달라지는 이유죠.

중위권 대학 입시는?

수능 영역 중 3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만큼 상위권보다 입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한정된 시간 내 해야 할 공부가 많은 학생이라면 희망 대학 모집 요강을 미리 살펴 자신에게 효율이 떨어지는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입시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